

경제 침체가 여권 단독으로 열리고, 아권은 미산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등 정치권은 약속이나 한듯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뒤늦게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는 태도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정치는 서로간의 대화 아니라 '독백'의 논리로 일관해왔다. 반대쪽이야 어떻든 제할 말만 하면 그만이다. 도무지 대화와 이해의 노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조계종도 마찬가지다. 사태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사이가 벌어진 총무원측과 정회개혁회의측의 대화는 끊긴 상태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생각이야.

지금부터라도 대화에 나서라. 국민과 중생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본분에 충실함이고, 책임있는 자세다. 어떤 자세로 대화해야 하는 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 끝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면 다룰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데 긴요한 일이 여섯가지 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함,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를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팔리 율장대품>

●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

대화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장야함경>

●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법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는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 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시랑을 살살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네의 설하신 가르침에는 다 다툼이 없느니라. <승사유법천소문경>

● 참다운 뜻은 참다운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알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방등경>

●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 그 중에 어떤 비구가 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자기가 말한 글귀는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그 뜻은 바르다’고 비구는 그 말을 듣거든 옳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라. ‘어떤가 비구여, 내 글귀는 이렇고 너의 글귀는 이렇하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만일 그 비구가 곧 대답하되 ‘내 글귀는 이렇고 네 글귀는 이렇하다. 네 글귀가 낫다.’ 그 비구는 이렇게 말할

때 비구는 또한 말하기를 ‘이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 하고, 마땅히 그 비구를 충고하고 꾸짖어 그치게 하고 마땅히 함께 연구하라. 이렇게 다 함께 화합할 것이요, 서로 싸움질을 하지 말라. 동일한 스승의 제자는 동일한 물과 젖이다.

● 믿음에 세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첫째는 제 과오를 뉘우치기, 둘째 남의 미덕을 보고 칭송하면서 기뻐하기, 셋째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기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특성을 닦아야 한다. 실수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재빨리 알아차려서 참회하고, 남의 미덕과 선행을 보면 충정으로 칭찬해서 그 명예를 높여 주며, 항상 부처님과 같이 살면서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기원해야 한다. <금광명경>

● 어리석은 사람이 어진 사람을 괘보고 헐뜯더라도, 어진 사람으로선 끝내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헐뜯음과 꾸짖음을 참아지면서 수순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장엄론경>

열린마당

행자교육 기간 연장

행자교육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조계종단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총무원장에 취임한 고신스님은 5대총림 방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행자교육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방장스님들도 찬성의 뜻을 표했다. “승가본연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발심해 산문에 처음 들어서는 행자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을 표했다. “승가본연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발심해 산문에 처음 들어서는 행자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선교육 후득도’ 제도 전환

무관스님 <조계종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행자교육은 화합을 위한 초석이다. 따라서 행자교육의 기간 연장문제는 승려로서의 자질문제에서 연유한다. 승가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6개월의 행자교육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또한 고구분사에서 전통적으로 교육을 받는 행자와 개인사찰에서 개인적인 수행에 그치는 행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교육방식을 적절히 조화시켜 선교육 후득도의 측면에서 행자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승려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제도화해 진정한 수행자로 배출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승려교육제도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 기회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간보다 교육내용 강화

수진스님 <해인사강원장 주>



요즘은 행자교육원에 입학하는 행자들의 평균 나이가 32.5세나 되고, 사회에서 이미 제도권의 교육을 모두 마친 이들이 많다. 따라서 행자교육기간의 연장보다는 교육내용이 행자교육 문제의 관건이 된다. 행자교육 기간보다는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행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교과목을 새롭게 편성해 효과적인 행자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앙적 측면의 교육은 물론이고, 학문적 측면에서 불교철학과 서양철학을 비교공부하는 과정을 마련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어려운 경전과 교리만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현대 행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대적 학문을 도입하는 것도 그 하나가 될 것이다.

“2~3년으로 기간 연장”

박광서 <법불교연대회의 공동대표>



현재의 6개월은 너무 짧다. 2년~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교육기간의 연장은 필요하다.

출가한 스님들의 70%~80%가 교화승이나 행정승으로 활동하게 되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충분한 수련생활을 통해 승려로서의 본분과 위의를 익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수행자 신분 못지않게 불자들이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초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계적인 승가교육을 통해 배출된 스님들이 재가자들의 교육과 수행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자교육원 학위제 도입”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행자교육은 스님이 되는 기초준비과정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몰두해 있던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스님이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수행을 연마하기에는 짧은 생각이 든다.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지식뿐 아니라 인간적인 성품도 여러 각도에서 연마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성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률을 갖추고 있는지, 어려운 수행과정을 견뎌낼 만한 의지와 결심이 확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자교육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행자교육기간을 2년~3년으로 정해서 행자교육과정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행자교육원을 졸업하면 학위를 주는 등 제도화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곤 생각한다.

제언

문중불교 조계종 망친다



이평대
충남대학교수
철학

조계종의 장구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중불교의 인습을 혁명해야 한다. 선종이 성립한 경로를 생각하여 보자. 西天28祖·東土6祖를 말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선종의 전통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 선종에서 법맥이란 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순수 선종의 전통을 이어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그 순수성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 하면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조계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문중불교의 인습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있을까?

문중불교에 대하여 선의의 경쟁을 운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조계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불제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총무원에 출가회방자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그들을 일괄적으로 행자교육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과한 행자에게만 사미(사미니)계를 수여하여, 100% 모두 중앙승가대학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한 사미(사미니)에게만 중경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구족계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종법에 따라서 강원·유원·선원·대학원 등에 배치하는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는 신문·라디오·TV 등에서 사문을 소개할 때 누구 앞으로 출가·득도 운운하는 기사는 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교TV 바라만 볼 것인가



임연태
<취재1부 차장>

95년 3월 세계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란 자부심과 기대로 출범한 불교TV.

‘부도위기 설’이 본격적으로 나돌고 있는 요즘의 불교TV는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고립돼 있다. 불자들은 주식공모를 외면하고 있고, 각 종단들도 지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

다. 이런 와중에 조계종은 올해 예산에서 불교TV 지원금 항목마저 제외시켰다. 지난 해에는 9천만원으로 책정된 지원금을 끝내 내놓지 않았었다. 당시 불교TV 경영자와 총무원 사이의 갈등이 좋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 불교방송(BBS)에 9천만원, 불교신문사에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배당한 조계종이 예산책정에서 불교TV를 제외시킨 데는 속사정이 있다.

‘괘씸죄’ 때문이다. 불교TV가 지난해 종단분규 때 11월 11일 승려대회를 생중계하는 등 정회개혁회의를 일방적으로 지지한데 반해 제

29대 총무원장 취임식은 단순보도 로만 방송한 점 등이 그 내용이다. 예산을 다룬 조계종 138회 임시총회에서 어느 의원도 불교TV의 예산 재의를 거론하지 않은 점은 그 ‘괘씸죄’의 농도를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불교TV 경영진 스스로가 이제까지 적절한 운영을 못했고 회생의

요안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깊이 뉘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뉘우침으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선 느낌이다. 그렇다고 불교TV가 쓰러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불교를 위한 불교인의 방송이기 때문이다. 회생의 묘안이 아쉬운 현실에서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이 지원 예산 항목을 제외시킨 것이 불교TV를 더욱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모는 ‘상징성’을 갖게 될까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ytlm@buddhopia.com)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신년맞이 큰 세일 4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들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최고 다섯 가지 장점

- ❖ 온화한 온열감
 - 34M 특수 카본열선에서 제공하는 찜질효과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 ❖ 양질의 원적외선 방사
 -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우수한 천연 맥반석만 사용합니다.
 - 천연 맥반석을 무공해 들침대 형태의 특수 코팅 공법으로 제조하여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하십시오.
 - 원적외선은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 유해 전자파 차단
 - 100% 동성분의 동적물질로 전자파를 차단하고 조절기로 전자파를 뿜아내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 부모님, 임산부, 아기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 편안한 건강매트
 - 국내에서 가장 크고 두텁게 제작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200×140×50, 2인용)
 -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해 제품이 산뜻합니다.
- ❖ 경제성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신비의 약돌 맥반석을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가 매우 적게 드는 경제적인 건강매트입니다.

사찰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 (5장이상)을 받습니다.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 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 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 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① 구입문의: 몰. 부다피아 쇼핑몰 02)732-1522

② 특가가격: ₩660,000 ₩398,000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 1년 TEL. 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제조원 : (주) MCI



그린홈 매트

첨단 온도조절기
· 전자파 차단 필치